

쉬운 게임을 어려운 게임으로 만들지 마라.

안녕하세요~ 두번째 시간입니다.

첫번째 시간은 유익하셨는지~?

이번 시간은 마인드셋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적어볼까 하는데어..

제가 장담컨데 만일 마인드셋이 올바르게 정립되면 돈을 벌 수 있게 될 겁니다. 각종 증시 분석 잘 못해도, 마인드셋이 시장친화적인 마인드셋이라면! 돈을 벌게 된다 이 말이지.

그만큼 마인드셋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데도 사람들은 말만 중요하다 그러지 별로 관심도 없고.. 그거에 대해 책을 내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히 말씀드리면 마인드가 정립되어 있고, 시장이 과거와도 같이 미래에도 존재한다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마인드셋(Mindset)..

사고의 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주식게임을 바라보는 관점. 게임을 정의하는 방식. 게임을 하는 목적의 정립.. 등을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쉬운 게임을 어려운 게임으로 만들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럼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당신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은 누가 벌게 해주겠습니까?

1) 천재적으로 매매를 한 나 자신

2) 바보 같이 돈을 갖다 바친 불특정 타인

3) 시장 그 자체

1)이라고 한 사람은 초하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단계죠. 고수가 보면 과대망상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주가가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머리에 핏발을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ㅋㅋ 걱정 마세요~ 저도 이 단계 거쳤거든요.. -,-

2)이라고 한 사람은 이제 시장의 세력에 대해 눈을 뜨고 자신이 독고다이 개미라는 걸 알게 된 왕초보 하수를 벗어난 정도의 단계에 속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 게임을 개인들끼리 벌이는 전쟁이라고 보고 내가 돈을 따면 누군가 잃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전략적으로 압도해야 한다는 씀똥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답은 3)입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아갈 때 낙엽은 그저 바람에 몸을 실을 뿐.. 모든 수익과 손실은 시장에서 비롯된다. 명언이니 적어두세요~!!!

게임의 목적은 시장을 열심히 뒤쫓아다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아내어 그 방향으로 몸을 트는 거죠. 그게 투자자가 해야 할 모든 것입니다.

바람이 불기 전에 바람이 어디로 불거라고 예측하는게 아니라,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매매의 핵심입니다.

주식은 정말 쉬운 게임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건 그저 바람의 방향을 알아내고 방향이 바뀌면 바뀐 방향을 또 따라가는 것일 뿐.. 돈은 시장이 벌어들여 줍니다. 내가 땀흘려 일할 필요도 없고, 상사 눈치에 들려고 파리처럼 손바닥을 비빌 필요도 없고... 방법만 알면 주식쟁이는 최고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주식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위의 문제에서 1) 혹은 2)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제!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니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해서 힘든 게임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니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이길 생각에 힘부터 쭉욱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주식을 어려운 게임으로 만드는 마인드셋은 돈을 잃지 않으려는 심리, 본전 심리, 매번 매매를 할 때마다 과거의 매매와 연관지으려는 심리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돈을 잃지 않으려는 심리는 마치 전쟁을 나가면서 아무도 죽지 않기를 바라는 심리랑 같져. 어떤 장군이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당하거나 장군직을 박탈당하게 되겠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희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아군 전체의 생존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주식의 목적은? 돈을 버는걸까요? ㅋ 물론 궁극적 목적은 그것이지만 매매를 할 동안은 그 사실을 살짝 잊어버려야 합니다. 주식의 목적은 시장이 가는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본전 심리와 과거 매매와 이번 매매를 연관지으려는 심리 또한 장애물이 됩니다. 내가 마지막 매매에서 돈을 잃었다고 이번 매매에서 돈을 따면 난 본전을 회복한게 아니라 그저 돈을 번 겁니다. 잃은 매매는 잃은 매매... 주식에서는 철저한 기억상실증 환자가 되어야 해여... 마치 오래전의 히트 영화 <메멘토>처럼..

과거에 잃어버리면 복수심리 혹은 자만심 등의 쓸데 없는 감정에 휘말리게 되어 결국 감정적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패의 지름길이제..

평가손실을 손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평가이익을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심리도 웃긴 심리입니다. 왜 손실과 이익에 대해 반대로 생각하져? 답은 정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평가손실은 이미 발생한 손실입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포지션을 보유할 때 합당한 이유는 한 가지 뿐입니다. 추세가 바뀌지 않았을 때 뿐이제. 반대로 평가이익은 결코 모든 이들의 이익이 아닙니다. 평가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차익실현을 하려고 들면 결코 모든 사람에게 그만큼의 평가이익이 떨어지지 않져! 평가이익은 허깨비일 뿐입니다.

아웅.. 아침이라 졸립네여.. 일단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제 컨디션에 따라 오늘 세번째 글을 연재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장세의 종류와 시세의 원리

⇒ 세번째 시간입니다.

아침 놀림목에서 선물 매수 포지션을 취한 후 시장을 지켜보고 있져~ 후후
이번에는 시세에 대해 조금 논해보도록 해여,,
시장을 구성하는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를 공기 입자라고 한다면!

시장은 바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바람의 성격 상 장세를 크게 4종류로 나눌 수 있져..

상승장세, 하락장세, 횡보장세, 그리고 변동성 장세!

상승장세란 정의상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장세를 말하고 하락장세란 고점을 계속 낮춰가고 있는 장세를 말하
져..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상승장세에서는 LONG POSITION이 답이고, 하락장세에서는 SHORT POSITION이 답입
니다.

횡보장세는 저점과 고점이 올라갔다 내려가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평적인 시세 움직임을 보이는 장세를 말하
는데,

이 때는 NO POSITION, 즉 무포가 답이져!

물론 옵션에 트인 분이라면 STRANGLE SELL POSITION도 괜찮구여.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은 지금 당장 네이버에
검색하여 지식을 확충하시길! ㅋㅋ 그러나 전 개인적으로 옵션 SELL POSITION의 위험성에 비해 횡보장에서 갑자기
변동성이 커지는 순간 생기는 손실 가능성에 비해 쥐꼬리만한 수익 가능성 때문에 STRANGLE SELL을 좋아하지 않
습니다. 흠.. 개인적인 취향이져..

그럼 변동성 장세란? 굳이 나누자면 변동성 상승, 변동성 하락, 변동성 횡보장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X발..
이러지 말자구여.. 그냥 널뛰기하는 미친 장세를 말하며 작년 10월부터 꽤 최근까지의 장세를 말하져.. 이럴 때 최
고의 전략은 STRANGLE BUY POSITION입니다. 개인적으로 STRANGLE BUY로 최근 재미가 쏠쏠하였음을 참고로
알려드림.. ㅋㅋ

그렇다면 현재의 장세는? ㅋㅋ 당연한 걸 말해야 하나..

일단 한 달 전 저점을 계속 높여간 순간부터 정의상 상승장이었고 그 때부터 '너무 올랐다 X발' 이런 생각 안하고
따라왔으면 돈 많이 묵었져?ㅋㅋㅋ 이제 저항까지도 뚫고 올라가니까 당연히 LONG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삼산형이
나 일봉 상 적삼병 같은 이상한 전환 패턴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져~

장세의 성격을 분류한 후에는 장세의 POWER를 가능해야 하는데 그건 거래량으로 측정합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건
공기입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니까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바람의 세기는 그만큼 강해서 모자도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
가 되져. ⇒ 그런데 산들바람은 설사 방향이 있다 하더라도 낙엽 정도나 날릴 뿐... 그러니까 거래량이 실리는 방향
성 장세에서는 STRONG LONG 혹은 SHORT POSITION을 취해야 하는 겁니다. 현재 KOSPI 거래량은 사상최대 수
준이져? ㅋㅋ POWER가 아주 센 겁니다.

방향성 매매를 할 때 진입 시점은 BUY ON THE DIPS AND SELL ON THE TOPS라는 격언을 따르시면 좋습니다. 꺾... 첫번째 글에서 말씀드린 놀림목 매매를 말하는 거고 개인마다 DIPS와 TOPS를 판별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정답은 없습니다. 전 STOCHASTIC(12,5,5)를 이용하여 과매도권을 DIPS, 과매수권을 TOPS라고 간주한 후 수익 포지션은 주로 PARABOLIC을 이용한 TRAILING STOP으로 정리하는 편이져. 진입과 보유전략은 백인백색이고 모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 안합니다.

자, 그럼 시세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을까여?

전 시세의 원리를 악수의 원리(HANDSHAKING PRINCIPLE)라고 부르길 좋아해여. 저랑 일하는 트레이더들을 가르칠 때도 이 원리를 자주 언급하곤 합니다.. ㅋ

악수의 원리란 거래가 체결될 때는 언제나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리를 말해여. 악수가 이루어진 후 —.,— 이제 양자는 차후 시세의 행보에 따라 서로 상반된 감정 상태에 빠지게 되져. ㅋ

날라가는 시세를 매도한 사람은 날라가는 개 지붕 쳐다보는 닭 신세가 되고 매수한 사람은 언제 이 리스크 덩어리를 다른 바보에게 집어던지고 배추덩어리를 챙길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매도한 측은 다시 자신이 매도한 수준까지 시세가 내려오면 다시 올라타고 말리라!!! 라는 심리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지의 원리(SUPPORT MECHANISM)입니다. 반대로 폭락하는 시세를 매수한 사람은 '아 X발! 다시 튀어오르면 본전이라도 건져야지'라는 심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저항의 원리(RESISTANCE MECHANISM)입니다.

이제 이평선이라는 놈을 살펴보게 되는데, 일목산인은 이평선의 개념을 확장시켜 구름층과 전환선 등등 이상한 개념도 만들었져.. 어쨌거나 핵심은 동일한데, 지지와 저항의 원리 때문에 시세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시세가 하락할 때는 최근 산 사람이 많으면 많을 수록 저항이 강해지고 시세가 상승할 때는 최근 판 사람이 많으면 많을 수록 지지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평선 정배열이라는 건 최근 5일, 20일, 60일 사이에 판 놈들이 시세가 떨어지지만 하면 다시 사줄 가능성이 크다는 야그고.. 역배열이라는 건 최근 5일, 20일, 60일 사이에 산 색히들이 올라오기만 하면 본전을 건져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야그입니다.

이제 매물벽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는데, 이런 녀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지지 혹은 저항이 강하다는 거져!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차익실현의 원리(PRINCIPLE OF PROFIT TAKING)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격도라는 개념이 있져? 시세와 이평선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까워지려는 반동력이 생겨난다는 개념입니다. 왜냐? 평가수익이 커지면 사람들은 그걸 챙기고 싶어하니까 당근이져!

이건 특히 상승장에서 하락장에 비해 더 분명히 나타나는데 폭락은 순간이지만 상승은 영겁이다.. 이런 말이 있져.. (찾아보지 마세여.. 제가 만든 말임다.. —.,—) 요즘은 파생시장의 영향이 커져서 하락 후 발생하는 이격도도 쏠 커 버링을 하는 녀들에 의해 복원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지만 여전히 아직은 상승해야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ㅋ 따라서 이격도라는 개념은 상승장에서 더 유효하고 이격도가 너무 벌어지면 쉬어가야 한다는 점 정도만 기억해두시면 될 듯 해여~

에?O.. 이번 글은 좀 이론적이 되었네여.. 아무쪼록 도움이 되는 글이니까 잘 새겨놓으시고..

에잉 상.. 글 쓰는 동안 시세가 날라가주기를 원했는데 지금 보니까 시세가 안 올라가네여.. 손절매해야 할 수도 있겠군.. 꺾.. 상..

개미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 (번외편)

너무나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네여..

감사합니다~~~~

제 글이 공감이 간다면 그건 순수 경험에 의해 쌓여진 내공이 반영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전 정말 젊은 시절을 주식에 갖다 바친 녀입니다.. 정말... 다른 걸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뭘해도 크게 성공했을 텐데..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져..

트레이딩은 지식이 아닙니다. 트레이더는 프로 게이머입니다. 스타 잘하는 색히들이 이론이 강해서 스타를 잘하나요? 아니죠~ 그건 이론 + 피눈물 나는 연습 + 그러는 중에 조금씩 쌓이는 내공 + 어느 순간 통합되면서 게임의 본질을 깨달는 도가 트이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리즈물을 연재하기로 마음을 먹은 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는 전파해야 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봐야 별 것도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란 무엇인지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고, 적어도 제가 겪은 우여곡절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리고 제가 그 동안 배운 트레이딩의 도(道)를 글로써 체계화해보고 싶은 욕심도 작용한 듯 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플래쉬백~~~~ 개인적인 스토리를 좀 까보겠습니다. ㅎㅎ

학창시절 전 주식동아리 회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주로 가치투자를 위시한 투자를 하고 있었고 올 동아리에서는 매주마다 모여서 기업분석을 심도있게 한 후 발표를 하고 의견 교환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 스몰 캡 전문이었는데 작지만 내실이 튼튼하고 고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것을 특기로 삼고 있었져. 특히 필립 피셔 영아는 제 영웅이었져! 그 영아의 책을 얼마나 반복해서 읽었는지 모릅니다.

전 졸업한 후 그 동안 쌓은 지식으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X발!!! 운이 없으려니까 IMF가 터지는 겁니다. 헐~~~ 은행은 안 망한다고 생각해서 사두었던 은행주도 휴지가 되어 버리고.. 전 날이면 날마다 쓰주병을 입에 물고 사는 신세가 되었져. 대학시절 만나 뜨겁게 사랑했던 여친도 저를 떠나고, 전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과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저를 더 비참하게 했던 건 제가 명문대 출신이라는 겁니다. 주위 친구들은 안정적으로 대기업에 입사해서 결혼해서 알통달콩 잘 살고 있는데 전 주식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X랄을 떨다가 폐인이 되었으니..

어쨌거나 전 IMF에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식에서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주식에 바닥이란 없으며 시장은 자기 고집을 부리는 자들을 골탕 먹이기를 즐긴다. 전 가치분석이라는 틀을 버리고 기술적 분석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처절한 실전 전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밤에는 대리 운전을 하고 각종 신종 알바를 하면서 몸 파는 거 빼고 다 했습니다. 전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명문대 나왔으니.. 하는 생각은 아예 버렸습니다.

전 주식의 고수라는 사람을 찾아 해매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비법을 배우려고 먼 길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팩스넷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곳에 있는 글을 보면서 고수 냄새를 풍기는 분에게는 무작정 쪽지를 보내 만나자고 해보기도 했습니다.

제 주식인생의 전환점은 최고의 스승을 만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분은 작은 카페를운영하셨던 분입니다. 그

러나 본직업은 그게 아니져. 카페는 취미로 하는 거고 본업은 파생시장의 트레이더였습니다. 그 분은 정말 재미로서는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셨는데 지나치게 겸손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글 쓰면서 자랑하는 스타도 아니셨습니다. 그랬기에 제가 그 분을 발견하게 된 건 엄청난 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 딱한 사정을 말하며 물불 안 가리고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저를 가엾게 여긴 그 분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은인과도 같은 분으로 저는 그 분을 통해 트레이딩의 기초 이론부터 탄탄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그 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분은 얼마 전 암으로 세상을 뜨셨고 저는 아버지를 잃은 것 이상으로 한 동안 슬픔에 빠져 지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글로 남기는 내용들은 추세추종 철학이라고 하는... 그 뿌리가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고 그 철학의 아주 충실한 계승자였던 스승님이 원조입니다.

스승님으로부터 추세추종학을 사사받고 파생시장에 입문한 1년 동안 저는 옵션매수로만 게임을 했습니다. 그게 스승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매매당 베팅 머니는 100만원 이내였져. 그 이상으로 키우다가 걸리면 파문당한다고 하셔져. ㅎㅎ 1년 동안 저는 그런데 잃기만 하다가 깡통을 찾습니다. ㅋㅋ 빙신...

2년차.. 전 스윙 트레이딩을 버리고 철저한 스캘핑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옵션매수로.. ㅋ 그러나 전 더 빠른 속도로 깡통을 찾습니다. 헐~~ -.,-

3년차.. 전 데이 트레이딩을 하지만 스캘핑보다는 호흡을 한 단계 더 길게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한테 잘 맞았던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1년 만에 원금을 50배 정도 뽐렸습니다. 원금이 워낙 작아 큰 부가 되지는 못했지만 빚을 청산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제 마이너스 인생을 청산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차. 전 5개월 만에 다시 원금을 5배 정도 불리는데 성공했고 스승님은 이제 선물과 옵션 매도를 겸한 진정한 파생 트레이딩을 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죠. 그 이후 전 옵션 헷징을 겸한 선물 트레이딩을 주로 하게 되었고 지금은 몇몇 동생과 함께 즐겁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전업 트레이더가 되었습니다. 일부 자금은 시스템으로 돌리고 있는데.. 쩡.. 시스템이 저보다 수익이 나쁜군여.. -.,- 멍청한.. ㅋ

파생의 전략 매매에 대해 잠깐.. 물론 저도 전략 매매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차익거래도 시도해봤고 변동성 매매를 할 때는 정확한 델타 헷징을 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계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보다 추세 추종이 우월합니다. 어차피 수익은 시장이 내주는 것이기에 내가 머리 싸맨다고 되는게 아니거등여!

그럼 다시 플래시 포워드~

전 때로는 추세를 따라가다가 가슴이 두근두근해지고 불안해져서 포지션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후 아니나 다를까 반대 방향으로 파란 똥침이나 빨간 똥침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구여? 솔직히 저도 설명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불안하면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불안해하면서까지 포지션을 보유할 이유가 없으니까여! 오버나잇도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때만 합니다. 불안해서 제 주위의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까지 잡쳐버리면 곤란하거등여. 저는 트레이딩에 오전 8시 반 정도부터 3시 15분까지만 초집중합니다. 그 담에는 그 날의 결과를 훌훌 털어버리고 점심을 먹습니다. 전 트레이딩 중에는 아무 것도 안 먹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일단 매매를 중단합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도 매매를 안 합니다.

개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론 피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요즘 많은 HTS에서 모의투자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돈이 아니라 할 맛이 안 나지만 그걸로 연습을 해보다 보면 시세의 강약을 느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시장친화적인 마인드입니다. 시.장.친.화.적.인 마인드!!!

만일 내가 어떤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왠지 자꾸 속이 뒤틀리고 쓰리다면 그건 내가 시장에 맞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GUT FEELING이 오는 순간 포지션은 정리해야 합니다. 물론 곧바로 반대로 올라타면 절대 안되구요! 시장이 진정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느 방향인지를 재분석해야 하는 겁니다.

시장이 효율적이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딴 말을 하는 지식 나부랭이들이 있져.

이 말은 원 뜻하고 똑같냐면.. 스타쿠래프트는 고수가 많기 때문에 고수가 되기 위해 연습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고,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비법이 있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비법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법은 없고 모든 것은 운이므로 공부하지 말고 수능 치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등신 같은 말입니까.

그딴 말을 믿느니 지금 이 순간 연습을 더 하는게 좋습니다.

기술을 연마하는 자에게 시장은 미소를 선물합니다.

번외편이 좀 길었군요~ 시리즈물은 계속 연재됩니다. ^_^

손절매의 예술

안녕하세요~

오늘이 4번째 클래스인가여? ㅎㅎ

개투 여러분~~~ 교수들에게 백이면 백 어케 해야 돈 버냐구 물어보셔요.

제가 장담컨데 그들은 단호하게 손절매 잘하라고 답할 겁니다. 손절을 워낙 많이들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미가 거의 퇴색될 정도입니다. 진부하져. 그래서 뭔가 다른 비법이 없을까 기웃기웃거리지만.. 그런거 없습니다.

주식은 야구랑 비슷해여.

공격도 잘해야 하지만 수비도 잘해야 합니다.

아무리 홈런을 뽕뽕 날려본들 매회마다 점수가 술술 새어나가면 시합을 이길 수 없져.

손절매의 예술은 바로 수비술(TECHNIQUE OF DEFENCE)입니다.

많은 개투들이 공격술에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면서 수비술은 그저 '손실이 커지면 끊는다' 정도로만 인식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초보 개투일 수록 더 먼저 연습해야 하는 것이 수비술입니다. 자기 몸을 지킬 줄 알아야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보 개투님덜! 교수들에게 질문을 할 때 '어케 해야 폭등주를 고를 수 있습니까?'라고 묻지 마세여. 그럼 맘씨 좋은 교수는 그저 웃음을 머금다가 '추세를 따르라'라고 하고 획 사라질 것이고, 맘씨 더러운 교수는 'x발. 그런 방법을 내가 알면 내가 왜 니한테 가르쳐 주냐? 내가 먹지!'라고 할 겁니다.

질문을 좀 바꿔보시져! '교수님! 어케 해야 폭락주를 피할 수 있습니까?' 'X발.. 전 이번에 X됐습니다. 어케 해야 다시 X되는 걸 피할 수 있을지 가르쳐주십시오!'라고 말이져. 그럼 교수들은 갑자기 해줄 말이 무척 많아질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비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거대한 원칙 몇을 먼저 소개하고 세부적인 기술을 언급할게요.

대.원.칙

원칙 1.

첫 클래스에서도 말씀드렸죠. 한 틱 한 틱 변할 때마다 손실의 공포 때문에 오줌까지 지릴 정도로 돈을 넣지 말라고.

미친 짓이라고. 자신이 가진 총 자본의 10% 이상 거래하지 마세요. 이 10%도 아주 크게 잡은 겁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2%입니다.

원칙 2.

작년 말 폭락장에서 숏 포지션을 취하지 못했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게 최고의 수비였을 겁니다. 코스피군이 1400에서 800까지 곤두박질치는 동안 개별 종목 중에는 3분의1도막은 물론이고 5분의 1도막 난 것도 허다했습니다. 몇 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평가금액이 모두의 계좌에서 증발해버린 겁니다.

하락장에서는 되도록 매수를 피하고 상승장에서는 매도를 피하세요. 동일한 장세에서 양쪽으로 모두 매매하려 하지 마세요.

DON'T GO AGAINST THE MARKET!

원칙 3.

베팅을 들어가기 전에 매번 자기 자신에게 주문처럼 질문을 하세요. 전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추세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으면 당근 베팅하면 안되져.. 강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고 하면 자신이 추세에 순응하고 있는지 역행하고 있는지를 자문하세요.

만일 추세에 순응하여 베팅하려고 한다면 과연 지금이 가장 안전한 자리인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DIPS ON A RALLY.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제가 장담컨데 이 세 가지 대원칙을 철저히 지키면 절대 쪽박 못칩니다. 쪽박 차기도 힘들져. 근데 제 경험상... 원칙 2, 3은 조금 연습하면 지킬 수 있으나.. 원칙 1은 상당한 경지에 이르기까지 지키기 힘듭니다. 초보 개투일 수록 베팅하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전재산을 가지고 미수 물뺑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구여? 그만큼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져. 자기 자신의 욕심을... 본능적 심리를...

원칙 1이 더 어려운 이유는 고수라도 때로는 수익이 확실한 자리에서는 초보 개투들이 경악할 정도로 강력하게 베팅하기도 하기 때문이져. 원칙 1을 위배한다는 말입니다. 속된 말로 마누라 속옷까지 팔아서 베팅하져.. 음.. 이런 변칙적 몰빵 베팅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하기로 하고..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일단 원칙 1을 준수해야 합니다..

손절매의 기술(LOSS CUT TECHNIQUES)

손절매의 정의를 꼭 새겨놓으세여!!

손절매란, "자신의 오판단을 인정하여 보유 포지션을 청산하는 행위이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승부사라면 패배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해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극복해야 할 난관은 이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로 포지션을 끊어낼 때 내장이 뒤틀리는 기분을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통도 참으면 쾌락이 된다고.. --ㅋ 암튼 고수의 경지에까지 이르려면 내장이 너덜너덜해져야 합니다. 그때쯤 되면 더 뒤틀릴 내장도 없어서 휘파람 불면서 손절하게 됩니다.

(제 사무실)

내 계좌 왓 : ㅠ.ㅠ 천만원 평가손실 중.. 나 손절해줘.. 잉~~~~

나 : 그래! ^o^~~~휘리릭.

(딸각)

(땡땡땡)

(매도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나 : ㅋㅋㅋㅋㅋㅋ

같은 사무실에 있는 트레이더 동상 : 앗. 영아! 돈 천만원 날려놓고 뭐 좋다고 실실 쪼개?

나 : ㅋ 잠시 모니터 건너편에 있는 슬픈 동상들한테 빌려준거삼~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을겨. ㅋ

같은 사무실에 있는 트레이더 동상 : ㅋ... ㅋㅋㅋ... 영아.. 그 동상이 사실은 나여~~ 난 매도 때렸거덩. 난 천만원 벌었삼 ㅋㅋㅋㅋ

나 : 뭐시? 감히 영아 돈을 등쳐먹어? 주겨주겨!!

(퍽퍽)

제 사무실의 어느 평화로운 오후 광경이었습다. --,--

1. 단순 손실 컷(SIMPLE LOSS CUT)

위의 예에서처럼 손실 자체의 확대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손실을 불문하고 포지션을 정리하는 행위저. 가장 일반적인 손절매의 개념이자 대부분 개투들의 유일한 개념이기도 하져.

2. 트레일링 이익 컷(TRAILING PROFIT CUT)

수익을 보존하는 기술입니다. 달리는 시세는 더 빨리 달리지 못하면 결국 반락하기 마련.. 파라볼릭 지표를 변수를 바꿔가면서 자기 스타일에 가장 맞게 사용합니다.

3. 타임 컷(TIME CUT)

원하는 추세가 주어진 시간 안에 나오지 않으면 이익,손실 불문하고 포지션을 정리하는 행위입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타임 컷을 이용해 비교해보겠습니다.



고수 : 흠.. 시세가 점프하기 위해 목을 위로 뺐은 모습이군.. S자형 몸매가 기가 막힌데.. 매수하자. (딸각) (딩동댕!)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수 : 오웬. 상승 N자형이군. 이거 폭등 신호라고 했어. 매수하자. (딸각) (딩동댕!)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고수와 하수가 똑같은 판단을 했져. 둘다 매수를 때렸습니다.

(한 30분 후)



고수 : X발.. 원래 S자형 몸매가 나오면 대가리가 위로 튀어올라야 하는데 이거 글렀네.. 지가 깎두기도 아니고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자나..-, - 박자가 깨졌어... 상... 나 같이 실망한 시키들이 매도 때리기 전에 내가 먼저 튀자. (딸각) (딩동댕!)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수 : 어라... 잘 안 오르네... 흠.. 그래도 상승 후 횡보 패턴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80%라고 했어. 기다리자!

이때 고수가 한 것이 타임컷입니다. 하수의 논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수는 처음에 급등을 예상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세는 급등을 하지 않았져.. 그 순간 고수는 자신의 예상이 빗나갔다는 걸 빨리 인정했져. 자신의 오판을 받아들인겁니다. 그러나 하수는 금방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내 자신의 포지션을 합리화시키져.

물론 결국 시세가 다시 급등해서 하수가 돈을 벌었을 수도 있져! 그러나 그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아닙니다.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자꾸 새로운 이유를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이 바닥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답니다.

시세파동에는 박자가 있습니다. 상승-조정-상승-조정을 따라가다 보면 일정한 리듬이 존재해여. 그런데 갑자기 상승이 나와야 할 박자에 옆으로 긴다던지 조정이 와야 할 박자에 갑자기 폭등한다던지 하면 뭔가 박자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 순간 시세는 자신의 예측 스펙트럼을 벗어나게 되고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타임컷은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4. 예약 손실 컷 (STOP LOSS ORDER)

주로 돌파 매매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항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든 그 순간 돌파한 저항선 아래 일정 부분에서 손절매 주문을 미리 걸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트레일링 컷으로 수익 보존을 합니다. 이걸 급등 혹은 급락을 추격할 때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아주 유용합니다. 급등한 시세는 언젠가 급락하기 마련이므로 수익의 보존과 거짓 돌파에 대한 대책이 꼭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전략적 잠복 (STRATEGIC AMBUSH)

예를 들어 150포인트 돌파하면 매수, 152.5에 이르면 추가매수, 155에 이르면 마지막 추가매수, 160포인트에 이르면 익절, 140포인트에 이르면 50% 매도, 130포인트에 도달하면 전량 손절매라는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를 두고 계획적 매매라고 하고 거대자본을 운용하는 프로 트레이더들이 많이 사용하져. 물론 이런 계획을 세우는 밑바탕은 현재까지의 추세, 지지와 저항 가격대, 피봇 포인트, 오실레이터 수준, 매물벽 등입니다.

6. 헷징 (HEDGING)

급등시세를 운이 좋게 잡았다고 하겠습니까. 이제 이격도가 너무 벌어져서 겁이 덜컥 납니다. 그러나 거래량으로 미루어 보아 POWER가 아주 강하고 주변 여건도 좋아 조정이 와도 아주 얇거나 폭등세가 계속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반대 방향으로 옵션을 소량 사두는 겁니다. 이걸 두고 헷징이라고 합니다.

시세가 계속 올라주면 선물(혹은 현물)에서 돈을 먹고 옵션은 보험 든거니까.. 뭐.. 소액이니 강 날려주고.. 시세가 조정을 받으면 옵션이 손실을 메워주져.

그러나! 헷징은 개투들한테는 별로 소용이 없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왜냐? 이 이유를 알려면 왜 헷징이라는 수단이 필요한지에 대해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미들의 평생 소원(?)은 한번 자신의 주문으로 차트에 봉 하나를 그려넣어보는 것일지 모르지만 --,-- 세력들은 제발 자신의 족적을 감추었으면 하고 원한답니다. 예를 들어 천억 정도 선물을 매수한 외국인 세력이 이제 평가이익을 현금화해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개미들은 그냥 청산하면 평가이익이 그대로 계좌로 떨어집니다. => 그러나

불쌍한 우리 외국인 형님은 자기가 청산하면 시세가 움직입니다. ㅠ.ㅠ 그럼 징글징글한 개미새끼들이 따라서 투매에 동참해 평가이익을 더 떨어뜨릴지도 모르져.. 으음... 조금씩 나누어 분할 매도해도 되지만 주변 정세를 보니 X발.. 멍청한 가이드너 장관이 또 일칠 거 같은 느낌입니다. 빨리 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럼 어케 해야 할까요?

ㅋㅋㅋ 풋옵손을 사둔 후에 선물을 대량 청산하든 됩니다. 그럼 슬리피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풋옵손에서 수익이 나므로 쌤쌤..

헛징은 큰손들에게 평가이익을 그대로 챙겨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토요일 오후.. 아침부터 작업을 했군여.. 여러분들의 호응에 저도 힘을 내서 글을 쓴 거 같네여!

전 슬슬 운동을 좀 하러 가보겠습니다.

수비를 제대로 연습하세요!!! 다 이긴 게임 막판에 역전 당해서 지지 말구여..

도움말

또라이의 도발에 세계가 시끌법적하군여.

오늘 동료 트레이더들과 만나서 북한 로켓 발사의 증시 파급 효과에 대해 야그를 쫓 해봤는데.. 반영된 악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일단은 관망 태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지여.. 좋은 동료들이 있으니 사는 맛이 납니다. 하나하나 독특한 매매법을 확립하고 있는 동료들.. 든든한 맘에 쏘주 한잔 까고 지금 집에 들어왔네여.. 딸꾹! ㅋㅋ~~~

쪽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표현하신 부분들이 없지 않으나 제가 보기엔 까고 얘기해서 어케 해야 돈 좀 목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마켓 리더들이 있었지여.. 개미들을 꼬드기고 자기만 따라오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역사의 뒤편길로 쓸쓸히 잊혀져 갔고.. 곧 다시 새로운 리더가 등장하여 다시 개미들을 등쳐먹었습니다.

개투 여러분..

전 한낱 범부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전 본의 아니게 개미들의 마켓 리더가 되기도 싫고... 그저 파생이라는 도박판의 짬밥을 10년이라 먹은 선배로써.. 후배들에게 조언이나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아직도 시장에서 많이 얻어터지지만.. 그래도 제 밤 한그릇 챙겨먹을 방법은 찾은 한 사람으로써.. 제 자신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하여 여기까지 온지라.. 개투들의 이야기가 한때는 모두 다 제 얘기였고.. 그 량기 땀에 각별한 맘을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자!

돈을 목는 방법이 있냐구여?

그런 방법 없습니다. 돈을 쉽게 목을 수 있는 구체적인 비법 같은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고, 현재도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X발.. 그럼.. 돈을 목을 수 없단 말이나.. 그건 아니져.. 만약 그렇다면 제가 왜 손가락 아프게 며칠 동안 여기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겠습니까! 돈을 벌 수는 있으나 언제나 통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장이 변하면 자기도 따라 변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시장을 늘 관찰하는 자가 시장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시장을 가장 잘 아는 자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져!

한동안 대형 우량주가 과도한 하락을 했을 때 단타로 베팅하여 20일선까지 반등하였을 때 먹고 나오는 방법이 유행했었습니다. 이것을 체계화하여 책을 펴낸 분도 있었져. 소위 '엔벨로프 기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기법이 개투들 사이에 퍼지고 얼마 되지 않아 10월의 대폭락... 결국 제 뇌리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CBNC.com의 표현을 빌리자면 '금융 자유낙하'(FINANCIAL FREEFALL)를 경험했지여.. 그때 현물만 하는 개투들은 참 X 같았져?

이미 그 이전부터 유행했던 상파나 하파는 이제 하수들도 한번씩은 시도해보는 기법이 되었고, 그럼으로써 그 유용성이 상당히..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시장을 하나의 대상으로 놓고 고찰을 할 때 너무도 자주 놓치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고찰하는 시장 속에는 바로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ARKET이라는 녀름을 잡아와 목판에 고정시켜 놓고 돋보기로 관찰을 하는데.. 아니.. X발.. 확대된 돋보기 속에 MARKET을 돋보기로 관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ㅋㅋㅋ

시장을 움직이는 수많은 변수 중에 미약하게나마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고.. 자신이 실력을 닦고 변화해나가는 동안 다른 녀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시장은 이런 녀름들의 집합체이니만큼 과거의 시장이 현재와 같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은 또 다시 같은 실수를 하고.. 다시 X되고.. 반성하고.. 그러다가 다시 X되는 과정을 밟지여. 증시에서 무엇이 반복되는 사건이고 무엇이 고유한 사건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직 경험만이 그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시장의 역사를 놓고 볼때... 그러니까 아주 오랜 역사를 놓고 보는 겁니다...

한 가지 변하지 않고 반복되어 온 과정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버블의 탄생과 붕괴입니다.. 하나의 버블이 가면 또 다른 버블이 탄생하고 결국은 다시 소멸합니다. 시장은 주기적으로 버블을 만들어내고 다시 그것을 소멸시키고.. 마치 인간의 인생 같지여. 이것이 바로 시장의 진리입니다.

추세추종이란 바로 시세의 버블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버블이 언제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 보면.. 그리고 결코 짧은 추세이나마 절대로 역행하지 않으려는 자세로 끈질기게 추세만을 쫓다 보면.. 분명 큰 버블에 동참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되고.. 바로 이 순간.. 성공적인 투자자는 그 버블을 끝까지 먹습니다. 그리고 그 버블이 붕괴될 때쯤 그 개투는 신분상승을 이룰만큼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버블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처럼 몇 년이 지속되는 수퍼 버블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장은 프랙탈 같은 성질이 있어서 수퍼 버블 속에는 그보다 작은 버블이 있고, 그 작은 버블 속에는 더 작은 버블이 있어서, 레버리지를 영리하게 활용한다면 그 작은 버블만 먹어도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자주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단타 트레이더들이 노리는 바입니다.

이럴진데.. 각종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언제 사야 하는가를 묻는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현재 제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있으나.. 일주일 후, 저는 이미 그 방법을 버리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글의 핵심을 이해하셔야 제가 계속 이어나갈 시리즈물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내일부터 또 다시 전투가 시작되겠군요.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섯번째 클래스

안녕하세요~

오늘 매매는 오전 중으로 마무리합니다. 후우~ 마이 묵었으니 토껴야지 더 묵으려고 하다보은 개털립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우리 시장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도는 장을 물러나고.. 글로써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ㅋㅋ

트레이딩은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 제가 매매한 사례를 두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론보다는 실제 케이스를 봐야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여~

첫글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진입시점은 이평선 수렴 후 눌림목이라고 하였지여? 금요일 바로 그러한 눌림목이 나타났습디다. 아래 선지 30분봉 차트를 보시져.



금일 장 시작 후 소폭 갱상승을 하며 5 이평선이 대가리를 위로 쳐들었죠. 제가 좋아하는 S라인이 나온 겁니다. 때 마침 파라볼릭도 매수 신호를 날려줘서 기분이 좋았고.. 이평선간 이격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데다가 금요일 조정구간에서 가격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매수 포지션을 취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가격 수준을 보니 매물대가 약하고, 장기 차트 상으로 보아도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 진입하였죠. 아래는 코수피 일봉 차트.

a가 저항선인데 뚫었음이 명백하고, b를 보면 매물이 거의 없어서(작년의 폭락 구간인데, 거래량 없이 투매가 일어났기 때문) 변동성이 증가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져.

이 말은 다시 말해 옅슨 매수가 매우 유리한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며, 이번 주 목요일 만기를 고려하면 대박이 속출하는 구간이라는 뜻도 됩니다. 따라서 금일의 전략은 콜옵슨 매수가 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타겟은 행사가 175포인트짜리 콜옵숀. 아래는 1분봉 차트.



매매 전략

손절매가 : 0.40 포인트

진입 전략 : STOCHASTIC 과매도권

청산 전략 : 50% 이상 수익이 발생한 이후 기준으로 20 이평선 붕괴

위의 차트를 보면 스토캐스틱 상 두번의 DIP이 나타났으며 이때를 이용해 저는 두 차례 옵션을 매집할 수 있었습니다. (놀림목 매수를 잊지 마시길!)

그 이후 시세가 날라가 50% 수익분기점을 달성하고(0.55포인트 통과) 그 때부터 청산시점은 20 이평선을 붕괴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 청산가는 0.90포인트 정도!

진입가 0.45포인트 기준으로 2배 수익이 달성되었습니다.

오늘 추가적 매매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배불리 먹었으니까!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은 모두 하실 수 있는 분이실테니.. 손가락 아프게 용어 설명까지 다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투들에게 부족한 것은 주어진 데이터를 통합하고 해석하는 능력과 손절매하는 능력입니다.

상당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차트들이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종목 선정의 문제

어느 새 다시 밤이 되었네요.

일부 분들이 저에게 쪽지를 보내왔습니다.

쪽지가 온 것을 읽어보면 많은 분들이 종목 선정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느낄 수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파생 트레이더라는 점이 과연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종목.

백이면 백 폭등 종목을 선정할 수 있다는 꿈은 개투들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가치투자자가 아니라면 종목 선정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 트레이더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 변동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이져.

현물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권장하고 싶은 종목은 KODEX200입니다. KODEX200으로 단타 게임을 하세요.

개투는 흔히.. 과거의 폭등주 차트를 보며.. 와... 저걸 잡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군침을 흘리져.

저 또한 그랬었구요.. 그러나 이제 저는 그것이 덧없는 환상임을 압니다.

그런 폭등주를 다 먹은 사람은 가치투자자이거나 운이 좋은 사람일 겁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매수 후 보유 전략의 우수성이 드러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매수 후 보유 전략은 폭락파동을 온몸으로 받는 경우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접근방법은 종목을 낚으려 할 것이 아니라 시세가 끊임없이 넘실대는 바다 속에서 먹을 만한 시세만을 낚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종목이 아니라 시세변동입니다. 고로 시세가 변동하는 종목이라면 어느 것이나 수익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이져. 그 종목을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서 팔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어떤 종목이든 먹을 수 있는 파동이 나올 때 그것만 먹고 토끼면 되지여. 안 그렇습니까?

내가 삼성전자에서 1% 수익을 먹고 나왔는데 하이닉스가 상한가 간다고 해서 배아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난 돈을 잃지 않고 먹고 나왔는데! 꺾 정말 안습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먹지 못한 파동이 아니라 거꾸로 먹은 파동입니다. X발.. 파동은 거꾸로 먹으면 계좌에서 돈을 토해냅니다.

시장의 무서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만이 대박주를 쳐다보며 군침을 흘립니다. 고수들은 그게 다 그림의 떡이라는 걸 알지여. 그래서 고수들은 철저하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먹을 것만 먹고 나옵니다.

근 1년 사이 눈부시게 실력이 급부상한 동상 한 명은 변곡점 투자의 귀재입니다. X나 신기하게 매매하더군요. 귀신 같이 변곡점을 맞춰서 짧게 먹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별명을 V헌터라고 부릅니다. ㅋㅋ (헌터 동상아, 게시판에

이런 글을 써서 미안하다. 내가 낸중에 술 사줄게 이해해라) 제가 하도 신기해서

'야, 나도 좀 알려주라. 나는 어케 변곡점을 그리 잘 맞추노?'

했더니 하는 말이

'영아, 난 그런 거 잘 몰라. 강 X나게 떨어지면 손절매가를 약간 아래에 정해두고 매수할 뿐이고! X나게 오르면 역시 위로 손절매가를 정해두고 매도 때릴 뿐이여. 어차피 주시기라는 녀름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아녀? 난 영아가 말한 추세라는 건 잘 못 따라가는데,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알거덩!'

전 그 동상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지여. 물론 전 변곡점 매매 같은 건 너무 위험해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하지만 그 동상은 변곡점 형성의 원리에 대해 제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핵심이 원치 눈치 빠른 개투님들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트레이딩의 핵심은 어떤 종목을 잘 골라서 바닥에서부터 꼭지까지 이쁘게 발라먹는게 아닙니다.

전 추세 헌터이지만, 그 동상은 변곡점 헌터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고수들의 특징은 매매방법이 단순하고 우아하다는 것이 하나고, 자신이 좋아하는 패턴이 나올 때만 매매한다는 것이 다른 하나더이다. 욕심을 조절할 줄 알기에 자기가 원하는 시세패턴이 나오지 않으면 아예 클릭질을 하지 않고, 원하는 패턴이 나왔을 때만 확실한 위험관리와 함께 강하게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 수 있을 때 팔아 이익을 챙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심심하면 매수하고, 겁나면 매도하고... 웬지 오를 거 같으면 매수하고, 떨어질 거 같으면 매도하는 초보 개투님들..

물론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확실하지도 않은 자리에서 베팅을 합니까? 심심합니까? 아님 돈이 남아 돕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은 대박주의 환상을 버리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세력님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X발.. 세력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잔디밭을 가꾸어놓았는데 여러분이 보텐 것도 없이 같이 먹자고 달려들면 세력님들이 이빠할 것 같습니까? 저라도 눈치 없는 새끼 꺼지라고 말하면서 파란 똥침을 날려줄 것 같은데여!

여러분은 개투입니다. 개투가 왜 개투인줄 압니까? 시장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개투인 겁니다. 개투가 주식 산다고 주가 오릅니까? 판다고 주가 내리나요? 시장이라는 바다는 개투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열정적으로 투신한다고 해도 잠잠할 뿐입니다. 시세의 바다에 풍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세력님들 뿐입니다. 그러니 개투는 하이에나 같이 세력님들이 던져주는 찌꺼기 고기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야금야금 먹으며 커야 하는 것이지 세력님들이랑 맞짱 뜨려고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개투는 주제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파생판에서 10년 가까이 굴러먹은 저 같은 녀름도 세력님들의 눈치를 보면서 전체 파동의 10분의 1 정도만 몰래 먹고 나오는데 초보 개미들이 감히 세력님들한테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고 갹치면 안되죠. 그러면 망합니다.

말을 심하게 했지만 확실히 깨달으라고 말씀 드린겁니다.

물론 저는 추세추종자입니다. 그리고 저 정도 내공이 쌓이면 언제 장투를 해서 끝까지 먹고 나와야 하고, 언제 단타

로 끌고 나와야 하는지도 어렵듯이 알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런 글을 이렇게 열심히 쓰는 것도 이 글을 읽는 개투들 100명 중 1명이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프로 트레이더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가 아닙니까. 그러니 침부터 욕심을 너무 내지 말고 종목이 아닌 시세 변화의 원리를 연구하세요. 파동이 위로 솟는 자리와 아래로 빠지는 자리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세요. 파동이 위로 솟는 자리에서는 매수를, 아래로 빠지는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내일도 치열하게 전투를 해봅시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길!

아웅~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코수피 일봉 차트 : 어제 위꼬리가 길게 달린 역망치형이 출현. 단기 고점을 암시. 20일선과의 이격도 사상최대 수준이라 부담.

선지 30분봉 차트 : 20 이평선을 붕괴

선지 5분봉, 1분봉 차트 : 역배열 전환

버뜨!(BUT!)

최근까지 지속된 상승추세와 선지 30분봉 차트의 이평선이 혼조세임을 감안하면 상승추세가 무너진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움.

따라서, 이런 날의 매매법은? 당근 쉬는 겁니다. ㅋㅋㅋ

트레이딩이 야구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져.. 스트라이크 존에 공이 들어오지 않을 때 방망이가 나가서는 안됩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공이 들어와도 칠 수 있을지, 쳐도 땅볼이 될지, 플라이가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존을 벗어난 공에까지 방망이가 나가면 어케 합니까.

제가 첫글 이래로 반복해온 야구를 다시 복습해보겠습니다.

첫번째, 모든 수익은 시장이 내어준다. 그러므로 시장이 우호적이지 않을 때는 기다려야 한다. 시장이 돈을 안 주겠는데 니가 날뛰어서 우짤긴데? 응?

두번째, 먹을 것만 먹으면 된다.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가리지 못하고 덤벼들면 제 욕심에 제가 당하기 마련이다.

자기만의 스트라이크 존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가치투자의 기준이 되었던, 차트의 일정한 패턴이 되었던 자기가 무엇을 먹을지 정하라는 것입니다. 투자업계의 최고 ?O아인 워렌 버핏도 기술주 버블은 자기 차지가 아니라고 쳐다도 보지 않았습시다. 자기가 잘 모르는 버블이니 먹지 않겠다는 거져. 이걸 보고 눈치 빠른 개투들은 투자의 비밀 한 가지를 깨달지 않았을까.. 내심 기대해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강한 추세를 제 스트라이크 존으로 가지고 있고 그게 가장 좋은 타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우기지는 않아요. 왜냐? 증시라는 생태계 속에는 호랭이만 있는게 아니라 노루도 있고 토끼도 있고 거북이도 있으니까. 내가 호랭이 사냥꾼이라고 토끼 사냥꾼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져. 나는 호랭이 가죽을 팔아 돈을 벌면 되고 토끼 사냥꾼은 애완삼에 토끼 팔아서 돈 벌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투들은 추세추종을 하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게 쥔 안전하다고 판단하니까여. 그러나 굳이 다른 방법을 취한다 해도 말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 공에나 방망이를 휘두르지 마세요. 자기가 가장 잘 칠 수 있는 구질만 때리면 되는 겁니다.

아마.. 전 앞으로 글을 쓰면서 투자의 어떤 핵심에 대해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의 세뇌가 될 정도로 말이져. 지겹더라도 이해바랍니다.